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일본의 어업보험사업에 관한 검토 결과

■ 일본, 새로운 보험사업 검토

- 일본 수산청은 19일 제4회 어선보험검토 워킹그룹 · 제5회 어업공제검토회 워킹그룹 · 제3회 어업보험사업에 관한 검토회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어업경영 안정대책과 어선보험제도에 대한 향후 방향 및 세부과제를 검토하였는데
 -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일본 어업보험사업의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어업경영 안정대책, 능동형 경영체에 대한 "집중 지원" 확인

- 어업경영 안정대책의 도입에 있어 일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의 현상유지적 재생산 확보를 목표로 더해 수입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어업경영 안정대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즉, 일반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재생산 확보가 근간인 현행 어업공제제도의 목표뿐만 아니라
 - 수산물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적극적 · 계획적으로 경영 개선에 임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입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새로운 어업경영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새로운 어업경영 안정대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체를 육성 · 확보하고자 어업의 장래를 담당하는 경영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경영 개선에 적극적·계획적으로 나서는 경영체에 대한 집중 지원을 내세운 점이 획기적임

■ 어업인단체·행정 등의 연대에 의한 “집중 지원” 중요

- 세부적으로 어업경영 안정대책의 경우 어업인이 여타 산업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업인단체·행정 등의 연대를 통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어업공제의 가입요건으로는 현행 어업공제제도 상의 경영 안정기능을 살려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영체를 언급함
- 어업경영 안정대책사업의 집행조직으로는 이미 전문적인 정보를 보유한 어업공제 단체의 활용을 제안하였음

■ 지불자원 마련, 적립방식의 적절성 제기

- 어업공제제도의 지불자원으로는 현행 어업공제제도가 취하고 있는 ‘보험방식’ 대신 ‘적립방식’을 제안하였는데
 - 이 방식이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해를 높이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어선보험사업, 어선보험단체의 적극적 대처 요청

- 어선보험사업 개선에서는 어선보험단체가 보험수주의 안정을 위해서 인위성이 높은 기관 고장 등의 발생 방지와 손해 감소를 위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어선 사고에 있어 건수가 많은 것은 유목 등 부유물과의 충돌에 의한 파손으로,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표류·표착물의 조기처리 등 관계기관에 의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봄

■ 특수보험 및 어선승선원 급여보험, 국가의 관여 필요

- 이외에 5개 조합이 통합하여 신설된 전국 광역어선보험조합을 모체로 계속해서 합병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어선의 책임보험 가입 촉진과 사업기반 강화도 중요하다고 보았음
- 그리고 특수보험 및 어선승선원 급여보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평가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어업 실태 및 수요에 대응한 재검토와 함께 보험제도의 신뢰를 위해 국가 관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임경희, imkh@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중국, 러시아와 수산협력 강화할 듯

- 지난 3월 27일에 중국 농업부 녀우둔(牛盾)부장은 40명의 농업대표단을 구성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중국 국가박람회(China National Fair)에 참석하였음
 - 녀우둔부장은 우수수산물 소개회의에서 '중국은 양식, 가공 기술이 발달하고 투자조건도 구비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어업자원 보호, 수산물 양식, 가공, 교역 등 부문에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음
 - 박람회 기간에 18개의 중국 수산기업은 러시아 수산기업과 상기 수산협력에 대해 회담을 가졌음
- 한편 양국은 1988년에 '어업협력협정'을, 1994년에 '중-러, 헤이룽(黑龍)강, 우수리(烏蘇里)강에 대한 어업자원보호 및 증·양식 의정서'를 체결하였음
 - 또한 양국의 수산물교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양국의 수산물 교역금액은 14억 3,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수산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들어 이를 더욱 강화할 의지를 표명하였음
 - 중국과 러시아의 수산협력은 양국의 입장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정책이지만 인접국가의 수산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는 러시아수역에서 입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국의 이러한 수산협력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은화, yhli19@kmi.re.kr>

■ 일본, 수산물 고차가공품 수입 증가

- 일본의 수산물 가공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6년도의 수입량 및 수입액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00년 이후 수입은 4년 연속으로 30만 톤 대에 머무르다가 해외의 가공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2004년 이후 40만 톤까지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 다시 늘어났음

- 종류별로는 신선·냉장·냉동식품과 염장·건조품이 모두 전년도를 밑돈 반면 가공도가 높은 고차가공품의 수입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새우튀김 및 고등어·대구알·오징어·연체동물 가공품, 가다랑어 훈연제품 등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태국, 베트남 등에서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의 수산물 가공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국가들도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가공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일본의 고차가공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수산물 소비국가인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 육류와의 대체로 인해 전체 수산물의 소비가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수입에 있어 품목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05년 기준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62% 점유)인 만큼 일본 수산물의 수급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요망됨

<임경희, imkh@kmi.re.kr>

■ 영국, 해양보전지역 지정 예정

- 영국 정부는 8개의 해양보전지역(Marine Reserve)을 지정하고자 하는 새로운 해양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음
 - 아울러 이 법안은 외해에 풍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세번(Severn) 지역에 조력댐(tidal barrage) 건설을 위해서 294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요구안도 담고 있음
 - 이곳에 설치 예정인 조력댐은 원자력 발전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차가 심한 세번(Severn) 지역의 조차를 이용할 것임
-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러한 조력댐 건설이 현재 감소 중인 연어와 뱀장어 같은 희귀 어종의 이동을 방해할 것이며, 또한 보호조(protected bird)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갯벌을 파괴시킬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와는 달리 정부 관계자들은 풍력과 여러 가지 전력 건립 계획을 위해 다양한 면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작업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 정부는 2010년까지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자원의 10% 정도 유지할 계획으로 있음

- 환경장관인 브래드쇼(Bradshaw)에 따르면 Dogger Bank지역에서 북쪽의 Darwin Mounds지역을 아우르는 8개의 해양보전지역은 북서 스코틀랜드에서 1,000미터 떨어진 산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어획이 금지되었지만 실제적인 어획 금지지역은 국민들과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 말하였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자원보호와 개발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 양자간 적절할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 임
 - 환경 보호론자들은 자원 보호를 통해 후세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론자들은 현재의 자원을 이용, 개발을 통한 성장을 바라고 있음
 - 이러한 상충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자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양자간 접촉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

<강형덕, thymos@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2월 중국의 수산물 도매가격,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

- 중국 농업부가 54개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에 중국의 수산물 평균 가격은 14위안(1,75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전월 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면 수산물의 평균 가격은 27위안(3,37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전월 대비 11.9% 상승하였고
 - 내수면 수산물의 평균 가격은 10위안(1,25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월 대비 3.4% 상승하였음
-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였고, 거래액은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고가 수산물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광둥성 주하이시, 수산물 '보호가격제도' 실시

-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는 수산물 '보호가격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하이웬(海源)수산물수출입회사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 지난 3월 26일에 하이웬수산물수출입회사는 600명의 양식업자와 농어, 흰다리새우, 4대 가어(청어, 초어, 흑연, 백연)에 대해 '보호가격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보호가격제도'란 가공수출회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의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는데,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여 생산자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 특히 무공해수산물인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
- 또한 주하이시 농업국은 보호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한 가공수출회사에 대해 일정한 우대 조치를 실시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수출회사의 이익도 보장하고 있음

■ 안후이성 허페이시, 화둥지역 최대 냉동창고 건설

-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화타이(華泰)그룹과 안웬(安遠)수출입회사는 공동으로 4억 위안(500억 원)을 투자하여 중국 화둥(華東)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냉동창고를 건설할 계획임
 - 창고는 5만 톤 규모의 냉동창고와 1만 톤 규모의 냉장창고로 구분됨
- 최근 내륙지역인 안후이성은 냉동식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냉동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냉동시설 부족으로 수산물 공급이 부족하여 일부 소비자들은 신선한 수산물을 먹기 위해 연안지역에 가서 먹기도 함
- 한편 허페이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페이시의 1인 당 연간 냉동식품 소비량은 6kg으로 냉동식품의 소비 잠재력이 아주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현재 허페이시의 냉동시설 규모는 약 1만 8,000톤으로 냉동시설이 6,000~8,000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수산물, 수산물 에코라벨제도 도입 결정

- 일본수산회는 자원 보호와 환경을 고려하여 어획된 상품임을 인증하는 '수산물 에코라벨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수입수산물을 중심으로 국제 에코라벨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이 대형할인점에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 양식어업인, 양식복어에 오너제도 도입

- 킨키(近畿)지역 내 미나미아와지(南淡路)시 후쿠라(福良)항의 복어 양식어업인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너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는 양식복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 전국해수양식협회에 따르면 진주, 굴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등록비용은 9,500~1만 엔 수준으로, 여기에 등록한 소비자는 어선으로 양식장을

방문하여 복어에게 사료를 주면서 양식 모습을 관찰하고 양식 방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 홈페이지에 갱신된 사진 등으로 성장 상황을 확인 할 수도 있음

- 개별 개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하시에는 어업인과 상담하여 좋은 복어를 선택, 가공회사가 전처리한 상품을 자택으로 배송 받을 수도 있음

■ 도쿄도의 식품 안심등록제도, 품목 추가

- 도쿄도는 생산정보제공식품사업자등록제도, 통칭 “식품의 안심등록제도”에 히카와(氷川)어협, 츠지노(辻野)양식장 등의 51개 상품을 새롭게 등록했다고 발표하였는데
 - 수산물에 관련된 등록건수는 전체 15개에 이름
-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제도는 산지의 이력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상품을 독자적으로 도쿄도가 등록, 홈페이지 등에 발표함으로써, 도민의 식품 선택 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 대상은 도내에 상품을 출하하는 전국의 식품관련업자로, 생산자,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소매업자도 등록할 수 있음
 - 기본적인 조건은 상품의 생산·유통이력을 기록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상품 관련 문의처 명시, 소비자 대응창구 설치 등이 필요함

■ 말레이시아, 어민들이 경영하는 수산시장 개시

- 말레이시아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산 시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자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어민 사회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장관에 따르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이러한 시장에서 팔리는 수산물은 kg당 대략 0.58달러에서 0.86달러 정도 저렴하게 팔려서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필리핀, 부화장 현대화 계획

- 필리핀의 팔라완(Palawan)지역 정부는 어업 및 수산 자원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과 MOU체결 후 수산물 부화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로부터 16만 7,102 달러의 자금을 공급 받을 것임

- 농업부 장관인 얍(Yap)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은 자국의 양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투자로 인해 개인 투자 역시 수산 분야로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음

■ 필리핀, 기후 변화에 따른 양식 산업 피해 우려

- 필리핀은 지난 3월 초에 개최된 FAO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기후 변화가 세계 수산물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필리핀은 기후 변화가 양식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현재 필리핀에서 수산업의 총 생산액은 GDP의 2.1%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부수어획물 투하 금지 법안 2008년부터 시행

- 미국 연방법원이 알래스카 트롤어업 단체가 제기한 부수어획 투하금지법안(bycatch reduction rule) 항소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본 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Amendment 79'로 불리는 이 법안은 베링해와 알류산 열도 지역에서 조업하는 125피트 이상의 트롤 어선들로 하여금 2008년부터 총 어획량의 65%를 어선이 보유하도록 하고, 2011년에는 85% 수준으로 상향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동안 트롤 어선은 서대류 등을 어획하면서 발생하는 부수 어획물 및 기타 어획물을 다시 바다에 버리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왔음

■ 아르헨티나, 작년에 비해 10% 수출 하락

- 올해 2월까지의 아르헨티나 어류 및 갑각류 수출은 물량으로는 7만 3,167톤, 금액으로는 1억 4,385만 4,000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6년 2월까지의 수출량 8만 1,000톤에 비해 10% 하락한 수치임
- 구체적으로 어류의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6만 2,000톤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액은 6% 증가한 1억 2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방대구의 수출은 2만 5,000톤, 4,7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칠레, 일본과 FTA 체결로 연어 및 어분의 관세 인하

- 3월 27일 칠레와 일본 정부 대표는 도쿄에서 자유무역협정문에 사인을 함으로써 국회 비준만을 남겨 둔 가운데, 칠레 정부는 일본에 일부 수산물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칠레는 한국, 중국에 이어 아시아지역 중 세 번째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자국산 연어 및 어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과하고 있던 수입 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게 되었음
 - 칠레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칠레의 대 일본시장 수산물 수출액은 92만 달러로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2005년 칠레의 대 일본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임)

- 공 지 사 항 -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주(2007.4.9)부터 KMI 웹진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우리 원은 2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과 해양수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품격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다뤄 줄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우리 원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온라인과 일부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던 정기 간행물을 웹진 형태로 통합하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꾸며, 독자 여러분에게 화요일 새벽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웹진이 발행되더라도 기존의 오프라인 정기간행물은 그대로 발간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KMI 웹진에는

1. KMI 정책 브리핑(매주 금요일 온라인 발행)
2. 해운선박시장 동향(매주 수요일 온라인 발행)
3. 지구촌 해양수산(매주 월요일 온라인 발행)
4. 해양수산 통계(새로운 내용으로 신설) 등 크게 4가지 간행물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부 독자에게 한정 배달하던 KMI 정책 브리핑을 확대, 개편해 모든 분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며, 그 내용도 KMI 브리핑, KMI 현안분석, 해양수산 Article 리뷰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KMI 웹진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